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社說

沒常識한 公普校長

—淸州米院公普의 怪常事—

一

우리는 朝鮮公普의 怪常事를 指摘함이 一二次에 그치지 아니하엿다 컷다면 컷은 問題이지마는 朝鮮의 將來를 차지할 朝鮮의 兒童을 敎育하는 普校는 그 敎育方針如何에 依하야 影響될 바 莫大한 故로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普校의 事件에 對하야 監觀不怠하는 바이다 그리하야 만일 不美한 點이 잇스면 「그를 鳴鼓而攻之」할 責任이 잇는 것을 痛切히 깨닷는 바이다

二

今番에 忠北淸州郡米院面公立普通學校에서 發生한 怪常事件에 對하여는 이미 論評한 바 잇지마는 또다시 論評할 必要를 깨닷는다 同校長 二羽芳夫氏가 五六學年生에게 修身試驗을 課할새 『朝鮮의 現狀에 鑑하야 各自 決心을 말하라』는 問題를 내여 生徒들로 하여금 생각하는 바를 말하라고 하엿섯다 그런데 그 結果 申某라는 生徒가 無期停學을 當하게 되엿다 그 生徒는 朝鮮獨立에 關한 것을 썻다는 것이 問題되엿다 그 校長이 그 事件이 重大하다고 생각하야 自己 혼자 處理하지 못하고 道廳에 가서 말하고 또 官駐在所로 가서 말하고 「重大事件」을 處理하엿다

三

그와 가튼 問題를 提出하고 그와 가튼 處分을 行한 校長은 우리가 아모리 好意로 생각할지라도 沒常識한 校長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업다 우리는 朝鮮안에 잇는 日本人公普校長이 거의 全部가 米院公普校長과 가튼 種類의 사람들이고 더구나 同一한 心理의 所有者인 것을 생각할 때에 朝鮮兒童을 爲하야 萬斛의 눈물을 아니 뿌릴 수 업다 아모리 어린아이들이지마는 그들도 다 朝鮮魂을 가진 이들이라 朝鮮사람의 生活을 朝鮮사람이 處理하여야 되겟다는 獨立的 思想을 抱持하게 될 수 잇는 것은 明白한 일이다 勿論 學校에서 每日 朝會時間에 三分式 新政治의 功德을 謳歌讚揚하지마는 兒童의 心意는 全的으로 變更할 수 업는 것이다 다만 兒童들은 平素에 눌리여서 그 생각하는 바를 率直하게 말할 수 업는 것 뿐이다

四

그러나 先生이 그와 가튼 問題를 提出하고 意見을 말하라고 하는 때에 對하야 生徒가 平素에 생각하던 바를 말하게 될 것은 當然한 일이다 그 先生은 平素에 生徒들에게 對하야 거짓말을 하지 말어라 하고 서가 달어지도록 訓示하엿슬 것은 定한 일이 아닌가? 그가 問題를 그와 가티 내여 노코 如何한 回答을 期待하엿던가 回答이 꼭 한가지로만 나올 것을 안다면 처음부터 試驗할 必要도 업는 것이다 問題에 對하여는 試驗者의 主觀으로 보아서 可한 答도 나올 것이요 不可한 答도 나올 것이다 그것은 처음부터 作定된 것이 아닌가? 平素에 先生이 가르처준 대로 答案을 쓰지 아니하엿다면 그에 對하야 評點할 때에 貶하는 方法이 自在할 것이다 그러한데 生徒들에게 必然的으로 그 곳으로 結論이 나갈 수 잇게 問題를 提出하여 노코 그 結果를 보고야 大驚失色하야 道廳과 警察官에게 까지 問題를 가지고 가서 그 叱責하여야 할 生徒에게 無期停學 處分까지 行하엿스니 그 校長의 沒常識함은 참 可笑롭다 그와 가튼 沒常識한 先生에게서 訓導를 밧지 아니하면 아니될 生徒들의 處地에는 사람이 고야 누가 同情하지 아니할가?

關稅改正法案

不日內로 公布實施

(東京電) 關稅定率改正에 關한 法律案은 二十五日 議會를 通過하얏스나 政府는 同改正法律案의 實施는 一日이 遲延되면 그만큼 投機輸入을 增加식힐 터임으로 될 수 잇는 대로 速히 勅裁를 어더 別로히 四月 一日 年度交替를 기다릴 것 업시 一兩日中 同改正法을 公布하고 即日로 施行할 터이라 하며 또 同時에 改正案에 關聯한 新瓶、亞鉛 其他 日本重要物產의 免稅에 關한 勅令案도 同時에 公布 即日 施行할 터이라더라

憲政緊急幹部會

議長自決案初志貫徹

(東京電) 憲政會에서는 二十六日 午前九時半부터 院內에서 緊急幹部會를 開하고 濱川、町田、原總務 以下 幹部出席 濱川(?) 田中(?) 兩氏로부터 昨夜 散會後 若槻首相이 會見코자 하엿스나 엇잿든 退院後 兩氏가 院內大臣室을 訪한 바 若槻首相、安達遞相 兩氏에 對하야 粕谷議長 自決案은 議長에게 假令 不公平이 잇다 하더라도 故意가 아니니 撤回하라는 勸告를 한 報告를 하고 協議한 바 該案은 他派와도 協議한 後 昨夜 提出을 마치엿슴으로 更히 撤回도 할 수 업서 進行을 傍觀하는 外에 他道가 업다고 決하고 곳 此旨를 院內大臣室의 安達遞相에게 傳하얏스며 從하야 議長에 對하야 自決案의 初志를 貫徹하기로 되얏다더라

明治製菓의 爭議

首謀者逐出로 惡化

(東京電) 神奈川縣川崎驛前 明治製菓株式會社 職工은 過般 待遇改善要求를 提出하얏스나 勞働總同盟神奈川聯合會는 其要求를 妥當하다 하야 圓滿解決에 努力하얏스나 會社側이 此를 듯지 안코 十八日 職工을 내몰아 首謀者 十九名을 二十四日에 馘首하얏슴에 爭端되야 爭議는 더욱 白熱化하야 爭議團은 川崎市內에 本部를 設하고 持久策을 講究中이라더라

警察部長會議

赤化宣傳取締等協議

(東京電) 日本內務省은 四月 下旬 地方長官會議 終了後에 繼續하야 警察部長會議를 開하고 今議會를 通過한 暴力行使處罰法、勞働爭議調停法、治安警察法改正實施、郡役所移管、赤化宣傳取締 等에 關하야 協議할 터이라더라

議會終了後 最初閣議

政情其他를 懇談

(東京電) 議會終了後의 初閣議는 二十六日 午後二時三十分부터 首相官邸에서 開會 若槻首相 以下 各大臣(濱口藏相、仙石鐵相 缺席)出席、若槻首相으로부터 議會中의 慰勞를 述하고 幣原外相은 外交經過의 報告를 한 後 今期議會에서 協贊을 得한 重要法案에 對하야 裁可를 經한 手續을 取하기로 한 後 政情其他에 對한 懇談을 하고 五時三十分 散會하얏더라

一、關東廳中學校官制中改正(大連中學級增에 依한 職員增加)

一、樺太廳中學校官制中改正(豐原中學級增에 依한 職員增加)

一、臺灣酒精令中改正

一、關稅定率法中 臺灣에 關한 特別의 件

首相午餐會

廿六日首相邸 議員을 招待하야

(東京電) 若槻首相은 二十六日 正午 首相官邸에서 議會終了를 披露하기 爲하야 貴衆兩院의 正副議長 議員 政府委員 八百餘名을 招待하고 主人側 各大臣이 出席하야 午餐會를 開催하엿는데 首相의 人事와 德川議長의 謝辭가 잇슨 後 歡談으로 時間을 보내고 午後二時 散會하엿는 바 首相의 人事는 左와 如하더라

今日 各位 多數의 來會를 得하엿슴은 光榮으로 아는 바이며 오직 粕谷議長이 疲勞로 말미아마 臨席치 못하엿슴을 遺憾으로 도뇌이나 速히 快癒되기를 바라고 今日 議會에서는 多數의 議案이 提出되엿슴에 不拘하고 兩院 共히 詳細한 審議를 遂하야 大體施設할 事項은 同意가 되엿슴은 大慶으로 信하고 政府當局이 議會에서의 說明이 多少 失禮된 點이 잇섯스나 海恕를 엇게 되엿슴을 歡喜한다 云云

麥酒値上

釀造元增稅로

(東京電) 既報 案이 엇든 稅整案이 通過된 外에 麥酒釀造元에 增稅하게 되엿슴으로 四月 一日부터 麥酒 四打入 一箱에 對하야 一圓式 値上을 實現하기로 各社의 協定이 成立되엿다더라

最終議員總會

(東京電) 今議會 最終의 憲政會議員總會는 二十六日 午後五時부터 丸之內 中央亭에서 開會되야 若槻總裁 以下 閣僚 及 議員、政務의 式辭가 잇섯고 午後六時 散會한 後 議員의 大懇親會를 開하얏더라

李王職御用掛

—任命發表

(東京電) 李王世子同妃兩殿下 御外遊에 對하야 二十六日 左와 如히 任命發表되엿더라

陸軍步兵大佐 金應善 李王職御用掛被命

三浦 淸子 李王職御用掛被命(奏任待遇)

會舘建築問題로 老年靑年의 衝突

會場은 修羅場、老人은 退場

黃海道長淵郡速遠面 苔灘興風會에서는 三月二十日에 臨時總會를 열고 會舘新築을 協議하든 中 突然히 場內는 修羅場이 되엿다는데 그 內容을 듯건대 六七年 前에 苔灘 『速達靑年會』 『老成會』 『農務會』가 이섯는데 各各 維持方針이 困難함으로 各代表가 協議한 結果 聯合하야 興風會로 改稱하고 以來 六七年을 維持하야 왓는데

興風會 內에는 靑年部가 따로 잇섯스나 數名에 不過하고 會員 全部가 四十歲 以上에 老人뿐이엿스며 會長 以下 部長 各部員 外지도 老人으로 되여 잇서서 會日이면 昔日 洞中 老人들의 모와 恰似할 뿐이든 바 苔灘有志靑年들은 此를 默過할 수 업다 하야 全部 入會하엿는데 昨年 秋期 定期總會 때에 任員을 改選하는 中에 老人들은 自覺이 잇는 듯이 任員을 靑年으로 選擧하자 하야 任員을 全部 靑年으로 選定하얏는데 四五個月을 지나서

二月에 臨時總會를 開催하고 新年에 對한 新事件을 協議中 會舘新築의 件에 入하야 會員 全部는 此를 贊成하야 執行委員으로 李元會 朴炳夏 金永德 諸氏를 選定하야 一任하엿는데 選定한 期日이 經過토록 事業에 着手치 아니함으로 評議會를 열고 會舘新築問題에 對하야 臨時總會를 開催하자 하야 去二十日에 開催하고 執行委員의 報告를 請하매 金永德氏가 會舘은 新築할 수가 업다고 報告하매 靑年側에서는 猛烈한 質問이 일어나자 金永德氏의 答辯에 我等 老人이 會舘新築을 反對가 아니라 前 臨時總會에 決議하기를 會庫에 貯蓄하기로 可決된 것인데 우리가 그 『벼』 六十石을 팔아서 新築하기로 決定하엿스나 집에 가서 우리 『로인』들이 생각하야 본즉 至今 六十石의 그 『벼』는 우리들이 最初 會를 組織할 때에 『벼』 한 말 식 내여 모흔 것이라 그러케 쓸 수 업다고 함으로 이 말을 들은 靑年側에서는 會를 無視한다는 論駁이 猛烈하야 會場이 騷亂하매 老年들은 辱說을 하며 全部 退場하엿는데 此後 事件이 엇지 展開될는지 一般은 注目中에 잇다더라(苔灘)

大盛況으로 創立된 文川勞働同盟

萬歲三唱으로 閉會

咸南 文川郡에는 邑內 附近에 勞働團體가 업슴을 遺憾으로 여겨 오든 바 勞働者 四十餘名은 去二十四日 午後九時頃 文川邑內 文興運送店 內에 會集하야 文川勞働同盟 發起會를 開催하고 臨時執行部 朴海晉 咸錫熙 蔡中秉 三氏의 司會로 諸事項을 討議하고 卽席에서 創立大會를 開하기로 滿場一致로 可決되야 準備委員 朴德榮 成錫熙 李昌祿 三氏를 選定하야 宣言 綱領 規約과 其他 一切를 準備케 한 後 發起大會는 閉會하고 三十分間 休憩하얏다가 即時 創立大會를 開催하얏는대 臨時執行部 咸錫熙 孫相勳 李承來 李昌祿 四氏의 司會로 各地로부터 온 祝文을 朗讀하고 宣言 綱領 規約을 通過한 後 順序에 依하야 執行委員을 選擧하고 諸般事項을 決議한 後 翌日 午前一時에 萬歲三唱으로 大盛況裡에서 閉會하얏다더라

◇決議

一、勞働運動을 喚起하는 同時에 業別團體組織을 促成할 일

一、勞働賃金은 從來 賃金보다 十錢式을 引上할 일

一、勞働時間은 職會를 보아 八時間制 實行할 일

一、勞働講座를 設置하야 勞働者 敎養에 注力할 일

一、每月 陰一日 月例會를 開催할 일

一、朝鮮勞働總同盟에 加盟할 일

一、其他 未備事項은 執行委員會에 一任할 일

◇執行委員 李昌祿 蔡中秉 李承來 孫相勳 申成均 金勝來 金良彥 文燮 金正三 崔炳準 朴海晉 朴德榮 成錫熙(文川)

仁川少年軍野營

去二十六日江華島로

仁川朝鮮少年軍本部에서는 今般 春期休暇를 利用하야 團員中 二十餘名을 團長 郭尙勳氏 引率下에 三月廿六日 午前에 仁川을 發하야 江華島로 向하야 山野活動으로 江華 곳곳으로 드러가서 野營한 後 翌日은 邑內에서 防火를 宣傳하고 二十八日에는 仁川으로 도라오리라더라(仁川)

日就月將의 牛時勞働教育

全南光州 牛時面에서는 一般 無產運動에 漸次 組織의 必然的 趨勢로 일어나는 一方에 竹筍과 가티 나날이 發展하야 간다는데 이제 그 內容狀況을 들으면 大槪 左와 如하다

◇牛時勞農學院 當地 勞農靑年會에서 經營한 勞農學院은 設立以來 數個 星霜을 經하야 幾多의 波瀾과 紛亂의 渦中에서 不斷히 健鬪하야 一般 無產兒童에게 만흔 效果를 내여 오든 바 아즉 어린이의 敎養機關이 업슴을 遺憾으로 생각하야 各方面으로 活動한 結果 지난 二十日부터 同學院 內에 養幼部를 設置하고 四十餘名의 어린이를 모아 敎養하야 온다는데 敎授는 同會 幹部 金基烈氏가 事任하엿다고

◇龍江勞働夜學 同面 龍江里에서는 有志 金泰亨 金容澈 兩氏의 發起로 昨年 八月頃부터 勞働夜學會를 設立하고 四十餘名의 無產男女兒童을 敎養하야 온다는데 前記 兩氏는 一般 兒童에게 鉛筆 冊子 等 一切 需用品을 全部 無料로 供給하야 今으로 學生이 逐日 增加하는 現狀이며 地方人士는 兩氏의 誠意를 稱頌한다고

◇立巖夜學設立 同面 立岩里에서는 一般 無產兒童이 배우랴 하여도 배울 時間이 업고 배울 곳이 업서서 恒常 悲哀와 絕望 中에서 現世의 不合理를 咀呪하고 잇든 바 同里 有志 鞠東映 金麟容 趙在燮 三氏는 이것을 一大遺憾으로 思하야 그들에게 다만 한字의 國文이라도 알리기 爲하야 精神的 物質的으로 만흔 活動을 하야 오든 바 요사이에는 그 準備가 完了되야 勞働夜學을 設立하고 來四月一日頃에 開學하기로 한다는데 志願學生이 五十餘名에 達한다더라(光州)

文川에 有志大會

七大事項決議

咸南 文川郡에서는 文川公立普通學校事件 外 郡內 重要事項을 決議키 爲하야 文川有志者大會를 文川靑年聯盟 主催로 지난 二十四日 午後二時에 文川靑年同盟 事務所 內에서 開催하고 左의 事項을 決議하얏다더라

◇討議事項

一、退學生 二名을 復校케 할 일

二、校長不信任案을 當事者 及 學務當局에 送致할 일

三、同校 敎員의 生徒에 對한 非行을 一般社會에 公布할 일

四、罷業資金은 三月末日 以內로 貯金者에게 還付케 하되 此에 不應하면 郡當局의 無理를 暴露식힐 일

五、罷業 共同販賣는 本執行委員會와 協議決定치 아니하면 非買同盟을 斷行할 일

六、旱害救濟共助組合金의 再徵과 契約 以外의 利子徵收에 對하야 其 內容을 調査한 後 相當 措處할 일

七、以上 實行方針은 執行委員會에 一任할 일

◇執行委員 朴海晉 成錫熙 金應錢 孫相勳 韓君和 孫鴻寬 朴憲榮(文川)

自由結婚과 戀愛

啄木鳥 投稿歡迎 (小四號 五十行以內 住所氏名明記)

◇戀愛의 自由와 結婚의 自由를 가지겟다고 絕叫하는 男女가 多함은 罕한 일이라 하겟다 人格者에게 持續되는 것이니 結婚의 自由도 戀愛의 自由도 亦是 人格잇는 者가 가저야 할 것이라 하겟다

◇吾人은 新聞紙上에서 十七八歲의 妙齡少女가 戀愛와 自由를 要求하려고 父母의 膝下를 脫하야 逃亡하엿다는 等의 報를 多少 듯는 바이다

◇그러면 逃亡한 그 少女들도 結婚하자면 먼저 戀愛한 것이 엇던 것을 指한 인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의 行動은 疑心할 것이다 그러면 그는 本能的 行動으로 拘束을 脫하야 滿足을 채우려는 것으로 밧게는 認定할 수 업는 것이다

◇故로 子女에게 戀愛와 結婚의 自由를 得하라면 먼저 敎育을 하야 人格을 涵養함에 有할 것이다

◇自由를 得하라면 먼저 人格을 涵養할 것이니 그리하야 戀愛와 結婚의 自由를 어든 것이 確實히 되는 것이다

◇그러나 近者에 新風潮에 感染되여서 既婚者면 離婚을 未婚者면 逃亡을 하며 一種의 自由戀愛만 부르지즈니 父母의 命令을 拒하고 精神으로 女學生을 본바다 아니 할 수 잇스랴

◇自由戀愛와 結婚을 하라면 먼저 그것을 擔負할 수 잇슬 만큼 人格잇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成人은 以上에 말한 것을 指하야 云云하니 自由戀愛를 하는 者는 그것이 아닐 것이야 말로 寒心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업다(西鄕支局 崔生)

永興勞働同盟

解產되자 解散된

發起會創立大會를 지나 發會式日에 突然히 解散

咸南 永興에서 勞働同盟을 發起하엿다 함은 既報한 바어니와 去十六日에 創立大會를 開催하고 勞働問題와 社會問題와 當面問題 等 諸般 決議와 各部委員 選擧까지 잇섯는대 去二十一日 發會式에 來賓祝辭 中 『征服者』란 말로 因하야 臨場警官으로부터 祝辭를 中止시키고 同氏를 檢束하는 同時에 同會에 對하야 解散을 命令하며 場內를 戒嚴하매 三百名의 會員은 快快히 도라가고 말엇다더라(永興)

元邱靑年創立

盈德郡寧海面 元邱洞 靑年 朴秉鐸 白淳赫 外 數人의 發起로 지난 十四日 當地 慶壽堂 內에서 元邱靑年會 創立總會를 開催하엿는데 五十餘人의 出席으로 자못 盛況을 일우엇스며 決議事項 及 被選任員은 如左하더라

◇決議事項

一、維持方針의 件 一、敎育獎勵의 件 一、風俗改良의 件 一、因襲打破의 件

◇任員

會長 白淳赫 總務 權李達 書記 南熙洛 朴獻紀 朴杜活 文藝部 朴秉鐸 南孝議 經理部 南獻鎬 金俊東 體育部 朴獻緯 白性潔 權育部 白繼來 權達八(盈德)

危境에 陷한 晋州講習會

有志의 熱誠으로 蹶起

晋州郡 一班城面 倉村里 晋東講習會는 創立한지 五個 星霜을 千辛萬苦로 겨우 오면서 農村 無產子弟를 다수히 敎養하야 오든 바 近來에 至하야는 元來부터 든든치 못하든 經濟가 더욱 困難하야 至하야 有志와 學父兄의 熱誠으로서 維持하야 오든 이 엇든데 最近에는 一層 維持가 困難하게 되야 危境에 至하게 되엿스든 바 去十七日에 學父兄會를 開하고 將來 維持方針을 討議한 結果 有志 金賢澤 李昌鎬 兩氏의 特志와 其他 學父兄의 熱誠으로 復活되얏다 하며 同時에 만흔 同情으로서 一時 安定되기로 하엿다더라

全順祚 百五十圓 李昌鎬 百五十圓 朴昌錫 三十圓 朴文璜 十圓 姜炳大 方鳳錫 崔敬允 吳致明 金在一 金日龍 尹炳德 各五圓 朴尙三 四圓 李泰鎬 吳姓一 金永祚 各三圓 金基厚 咸彩煥 金永乃 金泰奉 韓鍾贊 張在植 各二圓 金正洪 李正鎬 韓永奎 金杏俊 姜太周 金平淑 方秀彥 諸柄一 姜炳燮 各一圓(晉州)

咸北勞農聯盟

勞農分立코저

委員會를 召集

咸北勞農聯盟은 昨年 五月 一日에 咸北勞農聯盟을 創立한 以來 모든 事業을 健實하게 進行하든 中 얼마 前에 勞農 二字가 『不穩』하다는 理由로 警察當局에서 看板을 除去하라는 通牒이 잇슴으로 該會 幹部 諸氏는 百方으로 對抗策을 講究하엿스나 當局의 無理한 高壓的 政策에 엇지할 수 업시 모든 業務를 如前히 進行하여 왓스나 事情이 다른 勞働農民團體를 合同한다 함은 不可하다는 理由로 勞働團體와 農民團體를 本分立하기 爲하야 本月 三十日에 執行委員會를 召集하기로 한다더라(鏡城)

果樹栽培法講習

金志侃氏를 請邀하야

平南 江西郡 江西果樹組合에서는 去二十一日부터 二十四日 外지 四日間 龍岡郡 指導員 金志侃先生을 請邀하야 果樹栽培法講習會를 開하고 特히 施肥 剪定 病蟲害豫防

渡船時間變更

群山龍塘間

群山 龍塘間 渡船時間을 四月 一日부터 左와 如히 改定하야 實行한다더라

群山發 午前 六時半 八時 九時半 十一時 午後 一時 二時半 三時半 四時半 五時半 六時半

龍塘發 午前 七時 八時半 十時半 零時 午後 二時 三時 四時 五時 六時 七時(群山)

高州靑年同盟

四月一日에 發會

咸南 高原에는 靑年團體로 其 數가 不少하나 幾個 團體 外에는 有耶無耶 狀態임으로 이에 奮起하야 有爲한 靑年들이 去二十四日 館池市 金熙鍊氏 家에서 高州靑年同盟 發起大會를 開催하고 來四月一日에 創立大會 發會式을 擧行하기로 하고 午後十一時에 閉會하엿는데 準備委員은 如左하다더라

申赤峰 張良厚 方烈鋒 金宗烈 李毅善 申泰金 韓寅寬 趙晃誠 韓濟煥 外 二人(高原)

金海에 農校期成

有志가 奮起活動

慶南 金海邑內 具輪會 裵璡煥 兩氏의 發起로 지난 二十日 午後九時 金海面 旗院洞 文治模氏 家에서 金海公立農林學校 期成會 創立總會를 開催하얏는데 左와 如한 任員 選擧 及 決議가 有하엿다더라

◇任員 委員長 具輪會 委員 裵璡煥 許尙玉 任學讚 申鉉楠 金慶範 具滋金 文治律 裵昌煥 金鍾哲 朴秀夏 崔日璜 弘許議 金應在 外 三十八人

◇決議

一、金海公立農林學校設立을 道當局에 交涉하야 促成하기로 함(金海)

平里勞働夜學

蔚山郡 中南面 平里에서는 一個의 敎育機關이 無함을 크게 遺憾으로 思하여 오든 바 去二月부터 勞働夜學을 設置하고 李根秀君의 指揮下에 隆然히 擴興된다더라(彥陽)

淸潔事業統計

平壤府內

昨年中 平壤府 淸潔事業 成績을 보면 塵芥運搬 自動車 百四臺、馬車 六百八十六臺、車 七千二百七十一輛인데 運搬量은 自働車運搬이 一萬七百二十七貫、馬車運搬이 二萬五千五百二十四貫、車運搬이 十萬七千四百三十九貫인데 此에 所要된 人夫는 一萬三千五十七人이고 人糞尿의 運搬車數는 馬車 三十七百九이고 車가 一萬七百三十二輛이며 運搬量은 五萬七千八百九十六石인데 此에 所要된 人夫는 六萬一千八百四十人이라더라(平壤)

江西水組評議會

平南 江西水利組合에서는 去二十日 同郡會議室에서 評議員會를 開하고 規約改正과 本年度 組合費를 左와 如히 等級 賦課率을 決議하엿다더라(一反步에 對하야)

一等 八圓七十錢

二等 七圓八十錢

三等 七圓

四等 五圓五十錢

五等 三圓五十錢

六等 二圓三十錢(江西)

長湖院讀者優待

本報 長湖院支局에서는 管內 愛讀者를 優待하기 爲하야 同支局 寫眞班 記者 崔鍾碩氏의 自營인 牛島寫眞館과 依托하야 來四月一日부터 同十日 外지 本報 愛讀諸氏에 限하야 定價 各等 四割引으로 撮影한다는 바 管外 所在의 讀者諸氏라도 此券을 持參하기를 바란다(長湖院)

大時金組期成會

全南 潭陽郡 大田面 事務所 內에서 去二十日 午前十一時부터 水北、珍原、牛峙 等 各面 一部와 大田面 一圓의 有志諸氏가 會集하야 大時金融組合期成會를 組織할 目的으로 總會를 開催하고 左記와 如히 各面委員을 選定하고 同時에 當局의 陳情委員으로 李敏烈 李秉俊 大久保 大郞이 다더라(潭陽)

◇各面委員 光州牛峙面 范在豐 長城珍原面 車基柱 潭陽水北面 李熙珍 大田面 李敏炯

山淸幼稚園歌劇會

本月 二十一日 午後一時부터 山淸幼稚園에서는 어린이의 歌劇大會를 開催하얏는데 當日은 日氣가 不順하얏스나 正刻 前부터 모여드는 男女觀衆은 三百餘名에 達하얏스며 妙하고 嬌態잇고도 사랑스러운 어린이들의 天眞爛熳한 歌劇은 一般 觀衆에게 만흔 興味를 주엇슴으로 觀衆은 精神을 일흔 만큼 오고 바라 참을 모르도록 大盛況裡에서 閉會하얏다고(山淸)

落成紀念大講演

距今 二十餘年 歷史를 가진 天道敎 嘉山宗理院 新建築 落成에 際하야 去十八日 下午七時부터 紀念大講演을 新敎堂 內에서 開하엿는데 演士 李敦化氏가 『將來는 누의 것이냐』라는 演題로 長時間 熱辯을 吐하야 六七百名 聽衆에게 만흔 感想을 주엇다더라(嶺美)

私立學校期成會

委員을 改選活動

咸南 端川郡 廣泉面 東元里에는 兒童의 敎育機關으로 協東義塾이란 것이 잇스나 不完全함으로 그 곳 有志人士 諸氏는 再昨年에 私立學校 期成會를 組織한 以來 努力하여 오는 中인데 去十九日에 第二回 定期總會를 協東義塾室에서 開하고 李承允氏의 司會下에 諸般事項을 討議한 後 任員을 改選하고 閉會하엿다는데 그 會員 數는 二百七十名이나 되며 基本金도 募集되여 目的을 貫徹함에도 不遠하다더라

◇改選任員 徐仁信 李承允 郭河乙 李善琡 金守弘 沈基弘(端川)

六週年紀念

永新靑年會

咸南 永興郡 億岐面 兩下里에 잇는 永新靑年會에서는 去二十日에 永新靑年會 第六週年紀念式을 本會舘 內에서 盛大히 擧行하엿다더라(永興)

九湖靑年同盟創立

咸南 永興郡 九湖里에서는 當地 有志靑年 諸氏의 發起로 去十八日에 養善團 臨時事務所에서 九湖靑年同盟 創立總會를 開催하고 車敎烈君 司會下에 經過報告와 來賓 祝辭 祝文이 잇슨 後 諸般事項을 如左히 決議하고 創立萬歲三唱으로 無事閉會하엿다고

◇綱領

一、우리는 相互團結하야 新文化 向上에 努力함

一、우리는 智德敎養과 農村啓發의 先驅가 됨

◇決議事項

一、本會 向上에 關한 件

一、少年少女運動에 關한 件

一、異流團體에 關한 件

◇役員氏名

執行委員 李根榮 李文弼 劉淑烈 朴元勳 金炳珪 車敎烈 常務委員 趙奇允 劉竹烈(永興)

◇嶺南基督敎講演會 大邱嶺南基督敎靑年會에서는 오는 二十七日 下午七時三十分에 敷町 慶興學校 上層大講堂 內에서 特別講演會를 開催한다는 바 이는 世界基督敎聯合靑年會 朝鮮總務 李商在氏의 來邱를 利用하야 靑年運動에 對한 講演이라는 바 演士는 李商在氏라고(大邱)

◇潭靑委員會 全南 潭陽靑年會에서는 去二十三日 下午五時부터 同會舘 內에서 第十七回 委員會를 開催하고 諸般事項을 討議하는 中 特히 靑年學院 維持의 件과 及 潭陽幼稚園 期成의 件으로 長時間 討議한 結果 學院 維持는 各自가 必死的으로 如前히 活動을 持久하기로 可決하고 幼稚園 期成의 件은 時期問題인 故가 아니라 年前부터 繼續한 問題이니 必要라고 一致可決로 爲先 期成會 準備를 하기 爲하야 各 團體에서 二人式을 選定키로 하야 交涉委員으로 選擧한 後 同八時二十分에 散會하엿다고(潭陽)

◇少女修養會定總 三月二十日 午後一時부터 襄陽 造山里 少女修養會에서는 普聽學院 內에서 權舜夫氏 司會로 開會하고 執行委員을 改選後 다음과 가튼 決議가 잇섯다고

◇任員 執行委員 權舜夫 李玉春 崔宋合 李泰

◇決議事項

一、少女夜學을 開催할 일(三月二十五日)

一、어린이 讀書界를 購讀할 일

一、每土曜日 午後부터 讀書會로 모일 일

一、會員은 勤勞할 일(襄陽)

◇定靑年臨時會 咸南 定平郡 新興靑年會에서는 去廿三日에 第九回 臨時總會를 黃德峰 講習所 內에서 午前十一時부터 開催하고 左記事項을 決議後 委員外지 選定하고 同午後四時에 閉會하엿다고

一、委員補缺 金鍾傑 金在治 金鉉煥(新上)

◇公州音樂會盛況 去二十一日 公州師範校友會 主催 音樂大會는 觀衆 四百餘名으로 大盛況이엇다고(公州)

◇新靑委員會 咸南 永興郡 新興市에 잇는 新興靑年會에서는 二十八日에 第七回 執行委員會를 開하고 靑年運動의 當面問題 外 모든 것을 討議한다는데 執行委員은 모다 出席하야 주기를 바란다고(永興)

◇順寧靑年委員會 永興 順寧靑年會에서는 第二回 執行委員會를 去二十三日 午後七時 同會舘 內에서 開催하고 委員 事務分擔 及 左記 決議가 잇섯다고

◇執行委員 庶務部 張平也 陳東明 關致雲 組織部 張秀龍 徐信燮 李鍾德 調査部 張尙麟 許元喆 張東國 張錫允 宣傳部 陳成大 張文彰 申承浩 爭議部 趙鼎浩 金亨七 張聖彬 通信部 金錫洙 金鐵水 禹然俊 朴大來 嚴時明 敎育部 金秀洙 禹仁治 趙明在 總務部 禹一山 金平主 金鐸

◇決議案

一、朝鮮農民總同盟에 加盟키 爲하야 委員中 禹一山 禹如山 金鐸 金平主 四氏를 選定派送할 것(永興)

◇竹山農聯執委會 去二十三日 午前九時頃에 竹山農友聯盟에서 臨時執行委員會를 當地 某氏 家에서 開催하고 左記事項을 決議하얏다고

◇決議事項

一、農民生活狀態調査의 件

一、巡回講演의 件

一、小作權問題調停의 件

一、副業獎勵의 件(安城)

◇金氏十年勤續紀念 論山私立 輔仁學校에서는 지난 二十日 午前十一時부터 同校 大敎堂에서 獎學會 總會를 開催하고 同校 監 金源成氏의 勤續十週年紀念式外지 擧行하엿다는데 特히 學父兄 一同은 銀盃 一組를 贈呈하야 紀念을 하얏다고(江景)

◇寸鐵◇

◇【竹山】 安城郡守 洪鍾國氏는 竹山公普 第十二回 卒業式에 對한 祝辭로 學生에게 無產者는 上級學校에 가지 말라고 하엿다나 無產者에게 同情은 무던이 하는 貌樣

◇【安岳】 某普通學校 生徒들은 學校압흐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嘲弄이 一手라나! 學校當局者는 아는지?

◇【高原】 康郡守는 上山面民을 보고 말하기를 郡內 面에 學校를 新設하는데 上山面民이 무슨 關係가 잇느냐고 叱責하엿다나 國家主義도 못되고 面民主義인가?

大邱女子見學團募集

見學日時 四月八日(附則順延)

募集期限 四月六日外지(但期限內라도 滿員되는 時는 締切함)

會費 八十五錢(自働車提供) 但 讀者證을 所持한 讀者에게는 會費中 二十錢을 本支局에서 負擔함

見學場所 大邱刑務所、專賣支局、製絲工場、郵便局、水道池、高等女學校、道廳、裁判所、朝鮮民報社(見學場所는 形便에 依하야 變更하겟삼)

主催 朝鮮日報大邱支局

The Korea Daily News.

Seoul, Korea, Saturday, Mar. 27th, 1926.

THE MANAGING EDITOR

The Japan Christian Intelligencer

III

Up to the age of twenty, when he entered the university, he had been mostly dependant upon his brother, but after that he was able to earn more than enough to support himself by writing stories for juvenile and literary magazines. In fact he made as much as 70 yen and sometimes even 100 yen a month, which in those days of cheap prices was too much to be good for a hot-headed youth to have and spend as he liked. He soon fell into evil ways and became the opposite of an exemplary student, spending more times in gay houses than in class rooms. Not only that but he became swell-headed and in his selfconceit, criticized, ridiculed and attacked professors of the university in a literary magazine which he founded in conjuuction with another young man, who later shone like a meteor in the literary world and passed away in the prime of his life. A black sheep, it was only natural that he was no favourite with the university faculty and ultimately was expelled from the university.

Indignant at this treatment given him by the university, which was quite right but which he then thought was unfair and unjust, because he used to show himself well at examinations on English literature, the subject of his special study, he began to turn into a misanthrope.

英文欄

山縣五十雄氏의 自敍 (三)

奏効無比의 泄瀉止

常用하시면 『胃腸을 健全히 하고 泄瀉病惡疫에 걸닐 念慮 업슴니다』

건 위 고 장 환

健胃固腸丸

家庭에 常備 旅行에 必携

小兒에는 專門의 小兒固腸丸이 잇소

定價 廿錢 卅錢 五拾錢 壹圓 貳圓 參圓 五圓 拾圓

登錄商標

大阪市東區伏見町 谷固春堂 賣藥大藥房

今春二三月以後로 露、中領移住同胞激增

수중에로자돈한푼도업시남부녀대하야 물밀에밀리는부평초와가티국경을넘어

露領에만一個月間에無慮二萬名

매년삼사월의 해빙긔를 당하면 로중(露中)량면으로이주하는동포가 만흔중 금년은특별히함남북(咸南北)의화뎐민(火田民)중 길주(吉州)성진(城津)명천(明川)등디로부터 해로로혹은배로 로중디방에이주하는사람이 이월중순 부터삼월중순外지에 약삼천명의 다수에달하얏다는데 그들의 쫏겨가는 동긔는 화뎐금지령과 동텩(東拓)기타디주들의 가혹한소작료(小作料)의 징수로 먹고살것을 쌔앗기여서 생활난으로 살곳을 차저가는것 이라하며 그들의쫏겨가는정경은 이로말할수 업는중나루배라고 삯을못주어서 별별매는 사람도잇스며 혹은주막에드러서 오륙명의식구가 불과 두사람분의 밥을사서먹고 지넨다는데 금년일월이후 이월하순外지 조선과 간도방면 으로부터로령(露領)에이주한 동포수가 일만오천여명에달하며 경찰 붙어가는경향이라는데 이로 말미아마 불가가동귀일편면도잇다 하며최근경남(慶南) 전남(全南) 황해(黃海) 평안(平安)각도에서길림(吉林)합이빈(哈爾賓)각 방면에 이주하는자가만허서 이월이래 벌서수천명에 달하고봉텬(奉天)부근에 이주한 동포들도 소위 무장단취체규약(武裝團取締規約)과 중국관헌 의압박으로퇴거하는 사람이 만허서진실로북국(北國)에잇는 우리동포의일머문데이라더라(모처착뎐)

崔虎永氏歡迎會

재작년 일본동양음악학교를졸업후 『바요린』을 이년간연구하고금춘에 귀국한최호영씨환영회를동지사 이에발긔하야이십구일오후칠시 반부터경성우편국엽동해루(東海樓)에서 연다는데회비는이원 이라고

統義府員 昨朝市內潛入

모중대목뎍을관렬코자 警察은失色警戒中

대한통의부(大韓統義部)○○대원세명은 모모중대 목뎍을관렬하고자 비밀히국경을 넘어이십오일오후팔시경에 신의주(新義州)를거처서경성으로향하엿다 는급보가왓슴으로시내각경찰에서는즉시비상선을느리고대경계를개시하엿다 더라

暴力團員被捉

대판서에잡히어

일본대판부 특고과(大阪府特高課)에서는 이십오일이래로십수명의 주의자를 인치취조를하는중인데 그내용은수일전에써도친는단의잔당으로 주목받든석뎡(石井)복뎐(福田)와 세명이 동경(東京)에서 대판에와서 불온문서를 산포할계획을 하랴다가 미리부터 미행하던경관에게 발각된것이라더라(대판뎐보)

都草小作爭議 九名은免訴

모다고향으로도라가

전남무안군 도초면소작쟁의(全南務安郡都草面小作爭議)로 인하야 작년십월중에 전남각디경찰서원을 비상소집한후 경관대 일백이십여명이 경비선 금강산작환(金剛丸、鵬丸)두척에 난호어타고 도초도에들어가서 소작인간부와밋소작회원수십명을데포하는동시에소작회원천여명의 군중과경관대와의사이에일대충돌이이러나서량편의중경상도만히낫스며소작회측으로부터삼십여명을데포하야 목포 경찰서에서몃칠간 엄중취됴하다가 광주형무소(光州刑務所)로송치하엿다함은 그당시 보도한 바어니와이래 륙개월동안 예심(豫審)에 부쳐 텰창(鐵窓)의모진고초와 엄중한 취됴를밧다가 지난이십이일에 삼십여명 중 박긔수(朴基秀)외에 팔명은 면소되야 즉시 목포를거치여이십오일에 고향인 도초도로갓다는데씨명은 아래와갓다더라(목포)

姜基洪▲金容範▲金良實▲崔昌洙▲夫太彥▲高占水▲金行中▲朴泰圭

枇峴에火災

손해는이백원가량

경의선비현역 데마동 오백이십륙번디 장니우(張履祐)의집에서는 지난이십사일 오후네시십분경에 돌연 불이일어낫섯는데 써마츰 서북풍이불엇슴으로 일시는 불어세가심하엿섯든바 이 급보를접한 비현소방대와 경관 수명이출동하야 결사뎍으로 로력한결과 초가오간중 절반만태우고 동오시이십분경에 비로소 진화하얏다는데 원인은 면몰에서낫다하며 손해는 약이백원가량이라더라(비현)

官吏外지參加한 男女大賭博團

대구서에일망타진돼

지난이십사일오전열시경에대구부본뎡(大邱府本町)삼십칠번디 최송죽(崔松竹)이란 녀자의 집에서남녀열명의대도박단을검거하얏다는바 그중에는 군서긔한명도씌이엿다는데대구서에서는 이십오일에취됴를마치고죄고별금칠십원에처하얏다더라(대구)

美人飛行家朴孃

대구부출생으로불원간 삼등비행사가될터이다

조선에도 최근미인비행가 한사람이나오게되엿나 그는 경상북도대구부덕산뎡(大邱府德山町)출생인박경원(朴敬元)(二六)양으로어려서 부친을여히고 편모의 슬하에서 자라나든중 항상활발한일을조와하야 마츰내 멀리 현해탄(玄海灘)을건너 동경으로가서 립천비행장(立川飛行場)에서 목모무영(木暮武英)씨의지도하에 열심으로 공부를한결과기술이 일취월장하야 근근삼등비행사의 시험을 치르게되엿다더라(동경뎐보)

鐵瓮發掘

抱川에서

약삼백년의오래인 세월을지낸듯하다

지난이십사일에포천읍내(抱川邑內)김공배(金攻培)씨의 새집터를 닥는인부들이 땅을파다가 길이두자 넘어되는 쇠솟치 가량되는 무쇠두멍을 발굴하얏다는데 약삼백년전에 사용하던것이라하며 근수는 일백오십근가량이나된다더라(포천)

毒餅먹고慘死!

줄임못익인貧婦

개잡으라는독약너흔떡을 주어먹고참혹히죽어버려

찬서리는소리업시나리고봄꿈에 한참무르녹을새벽먼되마을갓가운동리에서 사람이숙흥을 놀래하는듯이 닭의우름이 처량하게들리는데 원수의가난을 저주하고 사회를원망하며이괴로운세상에 늙은남편과어린자식을남겨두고 한쫌기눈물로똣하지아니한영원의길을 떠나가는 한녀성이잇섯다 전남보성군(寶城郡)읍내 신작로엽 쓸어저가는 두어간오막사리에 세식구가몸을 의지한구청춘(具成春)(四二)의처 리대아(李大阿)(三二)는살림이구차한탓으로남의집에드나들며부역일이나 보살펴주고 식은밥그릇이나 어더다가 늙은 남편어린자식을 먹이며그날그날의모진목숨을니어오든바지난이십일역시아츰에 밥죽이러나 평소에 드나들든한동리김경애(金敬愛)외집문간에 드러서니 대사리문뒤스 길가에 뭉고힌쑥뭇(떡)세개가노여잇슴으로『누가이런잇는떡을 내버렷슬가?』하며집어가지고 쑥은놈두개는 어린애에게 줄작뎡으로마두어두고한놈만을가지고 부억에드러가 불을째면서곱흔배를 것잡다못하야 냅름냅름먹엇섯다 일본떡은 물론 사탕고물을 너흔것인즉 응당단맛이잇슬줄아랏더니 천만뜻밧게 단맛은업고 이상스러운 냄새가 코를찔으기에 이상스럽게 생각하고남어지두개를또개봉하야 에 무슨불은고약가튼것이 드러잇고 코로마타보즉 자긔항내음새가남으로 그제야 무슨독약인줄을쌔닷고 그것두개는 내어버렷스나 이왕먹은것한개는 주린창자속에 깁히드러가서 발서독긔작용으로배와허리가압흐고비

……엄중히취됴중이라더라(보성)

勞動組合奮起

적극뎍으로 사망자가족을원조

별항보도와가튼사실에대하야당디로동조합에서는 림시총회를 소집하야 보성청년회관에서 조합장최창순(崔昌淳)씨외사실됴사보고가잇슨후 다시 무도한던중일본인의 악덕행위를 분개한후 이백여명의 로동자동무는 분에방처어 공과는 매우긴장하엿는데다시그대책을토의한결과 아래와가티결의하엿다더라

一、사망자인리대아의장례는조합원이총출동하야 회장(會葬)하는동시에 상여를떠메고 시내를 일주하야 시위행렬을할일

一、사망자의가족으로하여금 중에게 대하야 복수(復讐)한 몽둥취케하며 적극뎍으로 원조할일(보성)

日暖風和時에 婦人見學團主催

本社大邱支局에서

싸뜻한새봄의하루날을 의미깁게보내자는목뎍

본보대구지국(大邱支局)에서는 금번 남자견학단이 끗나고 례년과가티 쏫피고잇는 따뜻한봄철을 리용하야 대삽하녀자견학단을 모집하고 대구시내에 잇는 중요한여러곳을 자동차로 견학할터인바 회비는 팔십오전으로 특히본보독자우대중을 가지신 독자여러분에게는 회비중 이십전을 본보지국에서 부담하기로하얏스며 당일에 특히주의하여주실것은 뎜심밥을 가지고오실것과 어린아이와 여러가지의 물품을가지지 말것이며 또한미쳐년자는 여러가지의형편에 의하야 참가할수가업게되엿는바 모집긔한이 멀지아니함으로 미리만원되기 전에 신청하심이 조흘듯하며 신청장소는 여러분의 편의를 도읍기위하야 아래와가티 시내여러곳에 두엇는데 당일견학할장소는 대략아래와 가트며 그날여러가지의 형편에 의하야 다소간 변경될는지도 모르겟더라(대구)

◇見學場所

大邱刑務所▲專賣支局▲製絲工場▲郵便局▲水源池▲高等女學校▲慶北道廳▲裁判所▲朝鮮民報社

◇申請場所

京町朴順五商店▲京町婦人商會▲本町茂英堂▲明治町大邱洋襪所▲新町永美理髮館▲東城町本報支局▲南城町慶北書院

蠹島火災

시외동독도리(市外東蠹島里)삼백구십칠번디하천일(河千一)의 집에서 지난이십오일 오전네시경에 발화되여동십일시경에진화하얏다는데손해는삼십원가량이라고

殷栗本夫毒殺犯

남녀가모다톄포되엿다

황해도 은률군남부면석천리(石川里)에사는김긔영(金基永)(四〇)은지난음력정월칠일에 그의안해리씨(李氏)(三五)에게 독살을 당하엿다는데 그자세한 내용을들은즉동군 림창식(林昌植)(三二)이라는자가 전부터 김긔영의집에자조다니며 그의처 리씨와비밀한관계를 매저왓는데 림창식은두려운 욕심이르키어 그본부를독살하고 두남녀가 안락한단꿈을꾸자는 약속으로 리씨와더부러 굿게약속한후 긔회만엿보던중 얼마전에김긔영이가 병이든 것을 긔회로여겨 남녀가공모한 다음 신천군조리면 당천시장에가서 비상을사다가 몰래타서먹엿스나 목뎍을 이루지못하고 두번재 음력정월 오일에비상을 타서먹여 드디여 독살하얏는데 그것이 탄로되야 남녀가 모다 데포되야 방금 은률경찰서에서 엄중히취됴중이라더라(장연)

往十里發疹病 一家危篤

한명은사망 륙명은위독

시외 하왕십리(市外下往十里) 삼백팔십이번디박치준(朴致俊)의 집에서는 발진(發疹)병이발생되엿다는데 호주 박치준은지난십칠일에 사망하고 그가족륙인이 모다이병에걸렷스며 그중에도 박치준의큰아들 상은(相殷)이는위험하다더라(동부)

江西大火

열한채가 전소하여

지난이십사일 오후다섯시에 평남강서군 동진면 기양시장(平南江西郡東津面岐陽市場)에서 불이이러나며 몹시 부는바람을 조차맹렬히타오르게되야 백여호(百餘戶)가밀집(密集)하여잇는 큰시장이 전멸하게 되엿슴으로 동군기양경찰관 주재소(同郡岐陽警察官駐在所)에서는 이급보를접하는 즉시아부(阿部署長)이하 서원십여명과 일변 소방부(消防夫)십오명도 자동차두대에 나누어타고 현장에 달려와서 그맹렬히타오르는불길을 무릅쓰고 진화에노력한결과 동아홉시에 겨우진화 하얏다는데 그원인은 동시장내 홍경식(洪京植)의무압 마당에서 『베』를매든녀인들이 불을잘죽이지안코 두엇던것이 몹시부는바람으로 집에옴겨부튼것이며 전소된집은 열한채이라하나 손해는아직 됴사중이라더라(강서)

八百族屬外지 結束去益鞏固

木浦製油罷業團後聞

차라리굶어죽을지언정 최후의승리를엇고말터

목보=목포제유공파업단(木浦製油工罷業團) 일백팔십여명은 그가족을합하면 팔백명에 달한다는데 로동시간(勞働時間)은 매일평균 십이삼시에 최고팔십전밧게 아니되는임금과 사람으로서는 당치못할 가진천대를바다가면서도 생(生)의 욕구(欲求)란엇지할수업서 부득이그날의로동임금을바다 가족의생활을계속하다가 임금인상(賃金引上)과 인권평등(人權平等)의 몃개됴건을들어 회사측에 요구하얏스나 완강한회사측은 이에 응치아니함으로 단연히동맹파업을 시작하야 원갓파란을 격거가면서도 백절불굴로 악전고투하야 오든중、최근결심으로 결사대를 조직하여가지고 제유회사공장을 파괴하며 동회사원과 직공을구타하야 중경상자를 내인사건으로부터 반동분자 여섯사람의 집에 발와된사건까지 이러나자 제유공맹파단과 목포청년동맹원을 인치취됴한다 함은 이미두보한바어니와 현금경찰서에 검속되야 취됴밧는파업단원윤수성(尹洙成)박홍식(朴興植) 외열한사람이라는데 삼개월동안이나 파업한 단원의가족들은 호텬통디(呼天痛地)의 원한(冤恨)을 품으지지며 차라리굶어죽을지언정 제유회사에 들어가 일할수는업다는 결심을 보히어 최후의 승리를엇고자더욱결속한다더라(목포)

六十老人의 列車轢死

온몸이셋에나서 그광경이참혹해

지난이십삼일 오후한시 사십분경에 경남선(京南線) 데삼호렬차가 련안을떠나 광천으로가는 도중 신례원(新禮院)과 례산(禮山)역 사이에잇는 관작리압다리를 지나다가 륙십이될락말락한 로인한명을치여 온몸이세개가되도록 참혹한광경을 이르키엇다는데 이급보를들은 례산경찰서(禮山警察署)에서는 즉시현장에 출장검시한후 피해자의주소성명을 됴사하얏스나 도모지알수업서 부득이 례산군례산면(禮山郡禮山面) 사무소로 인도하야 즉시공동묘디에가매장하게 되엿다더라(례산)

怨聲漲溢

价川鐵鑛夫

종일로동하여도 삭은불과몃십전

평남개천디방(平南价川地方)은 털광(鐵鑛)이 만흠을 말미암아 다수한 로동자를 채용하는터인바 그임금은쌀갑과 의복갑도 되지안을만큼 극히적어 할수업는곤궁에서 헤매인다는데 그사실을알어본즉 여러해동안 리력이잇는 사람이라야 일당북칠십전이오 보통은삼십오전(三十五錢)이라는더인즉 이가티적은임금에팔리워서 로력을함도고 사하고 죽엄이 어느써에닥칠는지 모르다는 광산로동을그래도 계속함은 오족밤이나마 어더먹으려라는 주견으로 그리함이라하나 이제그들 로동자의창원하는 원성은 실로송구할만큼 너른광산에 흘른다더라(개천)

闇夜三更臨津江上의大悲劇

咀呪와怨恨을人世에남기고 母女가一時投江自殺

『넓은세상에흐린긴금전은만코도만권만은』…◇…×…◇…『엇지하야우리집은돈이업시딸을팔게되나』

장단군군내면 백련리(長湍郡郡內面白蓮里) 이백오십사번디 최대규(崔大奎)의 안해서씨(徐氏)(哭)와 장녀임순(妊順)(一五)의 모녀는 지난십구일 밤에무참히림진강(臨津江)에싸저죽엇다는데 그죽은 사정을듯건데최대규는 원래생활이 곤난하든중작년에 수해로인하야 농작물이 전부유실 되엿슴으로 따라서일층 생계가 어려워서생각하다 못하야 작년십이월경에 자긔장녀임순이를 집안사람도 모르게장단군 진남면도라산리(長湍郡津南面都羅山里) 윤모(尹某)의 장남윤세보(尹世甫)와결혼하기로 약속하고 현금팔십원을 바다생활비에 보충하엿스나 이사실을 짐작한최대규의처 서씨는이세상을 비관하고 세상에 퍼진돈은만권만은 우리는사랑스러운 딸을파라 모진목숨을 이여감은사람된 본의가아니니차라리 죽는것만 갓지못하다하야 지난십구일밤에 깁히잠자든자긔의딸임순이를다리고원통한사실을 설파한후 이압흐로도또여하한 불상사가 생길는지모르니차라리 죽어버리는 것만갓지못하다하고모녀가붓들고세상의 공평되지못함을 저주하며통곡하다가 손길을 마조잡고적막한 임진강변에나와 슬피울다가한만흔 이세상을 등지고모녀가 얼사안은채 강중에투신하야고만무참히죽은것이라더라

黃金町路上에 怪屍體

남자의시데를자리에싸버려

이십육일 오전열시반경에 시내황금뎡 칠뎡목 길거리에 삿자리에 싸서 내버린 사십세쯤된조선인남자의 시테가 잇섯슴으로 이급보를접한 소관 본뎡서에서는곳현장에 림검하엿든바 자세한것을 알수업섯슴으로 방금각방면으로됴사중이라더라

돈안준다고 죽으려한자

방금병원에서치료중

평남대동군대보면 대평외리(平南大同郡大寶面大平外里)당창룡(唐昌龍)(二二)이란 청년은 지난십일 자긔집에서 양재물을먹고죽으려다가 죽지못하고 방금병원에서 치료중이라는데 그자세한내용을 드른즉 전긔당창룡이가 자긔외조모에게 돈을청구

爆彈携帶하고 渡江하랴다 被逮

무장단세명이조선에 잠입하랴다데포되여

義州憲兵隊에서取調中

이십오일오후 팔시경에 신의주헌병분대(新義州憲兵分隊)에서는압록강(鴨綠江)을 건느라는 수상한청년세명을 발견하고 신테를됴사한결과 무서운 폭탄세개를휴대하고 조선내디에 잠입하랴고한 독립단송모(宋某)외 두청년으로판명되어 방금취됴중이라더라

刑務所出火로 看守長引責自殺

일본대판형무소에서

이십육일 오전령시 오십분경에 일본계시 대판형무소(堺市大阪刑務所)에서는 구내데삼구창고로부터 불이나서 건평사십평의 한채가전소된후 오후한시 이십분경에 진화되엿다는데 감방과는떠러저잇슴으로 죄수들에게는 이상이업스나 그날밤숙직간수장 안달록삼랑(安達六三郎)(四〇)은책임을늣기고 창고동편 우물에싸저서 자살하엿다는바 출화원인은 이십오일창고에출입한든 죄수가 몰래먹든 담배불이라고하나출화당시는정 밤중이엿슴으로 자세알수가 업다더라(대판뎐보)

到處에入學難 蠹島公普엔生徒難

지독한작년홍수의재해로 보교에입학할아동도줄어

전조선어느곳을물론하고보통학교를 위시하야 어느학교이든지 입학난을 부르지즈며 심지어보통학교에서선발시험(選拔試驗)까지 시행하게된이때임을 불구하고 오즉시외 독도공립보통학교(市外蠹島公立普通學校)는신학긔에입학지원자(入學志願者)가정수에 부족이되여 일대공황을늣기게되엿나는데 이제 그내용을드른즉 독도(蠹島) 일대는작년홍수에의식주(衣食住)전부를사나운 물결에쓸려보내고 로밖에서 바황하는중임으로 아모리 교육이중하다 하더라도학교에 보낼도리가업스며 더욱이학비어들 곳이업슴으로 입학을식히지못함이라더라(동부)

旺新學院增築

의연금이모집되여

시외왕십리(市外往十里)왕신청년회(旺新靑年會)에서경영하는왕신학원(旺新學院)의교실이부족하야 증축의연을 모집한다함은이미보도한바이어니와그동안동회회장서경환(徐敬煥)씨외이삼인의 열성으로 오백여원의의연금이 모집되여 지난십일부터증축공사에착수하얏다는

前科者라고離婚訴訟!

自己爲해懲役산男便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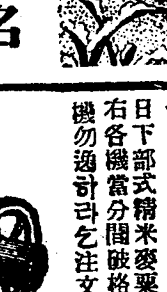
사랑하는처자를먹여살리고저범죄한남편을 징역산사람과가티살기실타고리혼하는안해

被訴者는號哭하며法官에哀訴

지난 이십사일 오전십일시경에 대구디방법원 데이호 법뎡에서는비참참담한 리혼조송이 개뎡되엿는바 원고는상주군락동면상촌리 리명선(尙州郡洛東面上村里李明善)(三〇)이며 녀자는가리이십여년을 사라오며 유자생녀하야 상당한 가뎡을이루어오던 림선이(林先伊)(四〇)로현금대구부동운뎡(大邱府東雲町)백칠십칠번디에와서잇는터인바 그 리혼의 리유로서는 나는징역을 살고나온남자와는 가티살기실타 하야 소송을 데긔함이라는데 남자편으로서는내가 몬저위조를하야팔개월간복역한것은다른데에쓰라든것이아니고사랑하는안해와 자녀를먹여 살리고져한것이 그러케알들하게사랑하든안해로부터리혼수속을 당함은 넘우나원통하다고 눈물석거변명 하얏든데현법률상으로보면징역산남자를리혼코저하면 사실상 용이한터임으로 필경남자편이 패소를 하고말듯한바판결언도는오는삼십일쯤이라더라(대구)

齒醫二十九名

京城齒醫卒業生



경성치과 의학교의 데이회졸업생은 이십구명인데 그중조선사람이 이십명이오 또일본녀자가 구명이라하며 졸업생중 개업할 아홉명을 제한외에는 모다부속의원이나 관립병원등에 취직케되엿다더라

◇……各校卒業式……◇

◇齒科醫學 은오후두시부터 데이회졸업식

◇權昌學院 은오후두시부터 데일회졸업식

◇取消◇ 大正十五年三月二十一日發行第一九七八號朝刊二面記事中『同作謀略』이란題下의記事는事實相違이기에茲에取消함

日本에서米洲로가는 神經痛류마지스에 神奇한良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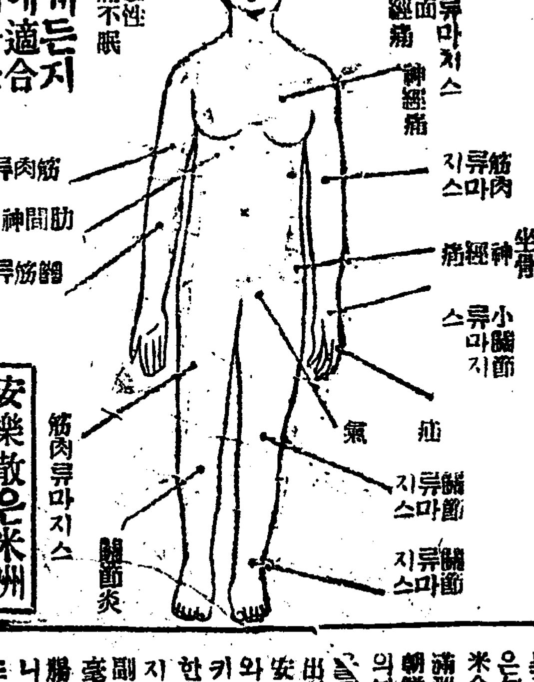
△此藥을아지못하고苦生하는人士는速히服用하시오

△아모리頑固한慢性의難病이라도잘낫슴니다

△웨ー鍼이나灸나付藥이나溫泉으로낫지아니합닛가

日本人이日本에서처음으로發明한神經痛『류마지스』이낫는藥이一一外지는곳치지못하게됨니다그리하야、氣候의換節時、몸이얼거一有하야多數한感謝狀과全治實例를有하고諸家의用命이日益盛況을呈하야日本은勿論、北米合衆國、滿洲、支那、朝鮮의海外外지高評을受하야躍進한安樂散은이와가티豫洲에外지神奇한藥力을가지고잇스나副作用은少毫도업고胃腸도害치아니하며下痢도나지아니하고、心神

世界에文化를자랑하는英領가나다北아메리가、펑과ー에輸入되야盛大히同病者間에實行됨니다이와가티歐米文明國에外지도高評을밧게된것은조금도異常할것이업슴니다畢竟在來習式의되지못한藥과갓지아니하야其藥의現著한外에



(輸出을疑心하시는人士에게는、稅務署의承認書를公開함) 米洲에서外지此病에는至今有効한藥이업는것갓슴니다、그런즉本病으로오래동안이藥을쓰는동안에더욱重하야진關節류마지스、筋肉류마지스、多發性神經炎、各種의神經痛等으로、腰、坐骨痛症、手足、骨節、顔面、頭部、腹、肋間、肩、腕、肘等에發하는苦痛、浮症의不治로苦生하시는人士는惡觀마시고即時試用하시오、지금外지쓰시든藥과갓지아니한것을곳아시게될것이올시다、커一時的이아닌、炎、付藥、溫泉等의治療는決코根本的病根

나、또는感氣가들州와、雨天이身體의運動이過함州에는반드시또다시도커서苦痛이나며症이發함니다、乃終에는不具者가되고不幸한人士를爲하야幾萬의도아니하면아니되게됨니다 이와가티不幸한人士를爲하야多額의宣傳費를投하야、아리커드리고자하는治療藥『安樂散』은吾等恩人『쓰롬한슈벨구』氏、아ー가스도氏兩先生이實驗賞用藥을基本으로하고東洋人特有의病體에適合한南洋의天生物을加味한것인데此를服用하면病根의中樞神經에緩解作用을與하야、견되기어려운苦痛을곳낫게

모든사람의體性에適合하야實驗者는모다喜不自勝합니다、他에代藥이업는故로반드시河合洋行의『安樂散』이라고指名하야주시기를바랍니다近者에殊常한類似藥이續出하엿사오니特別히注意하십을바랍니다

「安樂散」의藥價 五日分壹圓十錢、十二日分二圓廿錢、慢性廿三日分四圓、德用四十六日分七圓、郵便爲替又는振替注文은送料十二錢代金引換送料廿錢切手로반드시前送하시오

東京市本鄕區菊坂町五十六番地 總發賣元 河合洋行 振替東京四六一八二番 電話小石川六八三五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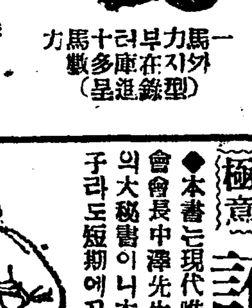
京城府社稷洞二一七 竹內洋行藥品部 振替京城一九一〇番 電話光化門一三一一番

京城府南大門通五丁目四 河合洋行京城支店 電話長三五六七番 振替京城四六六七番

總督府及各道郡御指定品

ニノミヤ變動式石油發動機
ニノミヤ高級籾摺機
セントリーフユーガルポンプ
日下部式精米麥粟稗機及製粉機
右各機當分間破格割引提供하오니好機勿逸하라注文

ニノミヤ式



一馬力부터十馬力外지在庫多數(型錄進呈)

地方特約店募集

京城府西界洞三二 京城鐵工所 電龍山二二三番

京城府南大門外 京城鐵工所營業部 電本局九四一番

▲廣告하시오 宣傳하시오

▲愛讀하시오

남에게알리고자하시거든!

廣告도記事

必要한廣告는오려두시오!

●痛快한男女護身의秘法公開●

◆◆누구던지곳될수잇는놀나운大秘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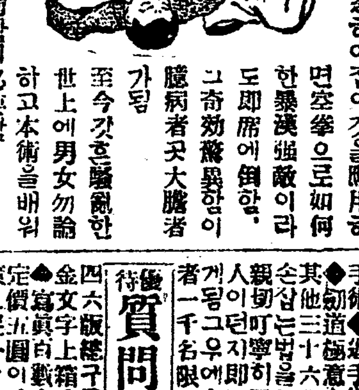
◆十五六의女少라도壯大한男子를自由自在로

陸軍大將一戶兵衞閣下題字 高田博士村松博士外諸名士賞讚推奬

從三位下田歌子女史題字 神道大教正護身術開祖中澤蘇白著

武道極意 護身術奧義 自然的歡迎 再版忽增刊

◆本書는現代唯一의護身術開祖愛國神武會會長中澤先生이心血을傾注著述한空前의大秘書이니本術은修業困難도업고婦女子라도短期에곳通達하야잡이것을應用하야可히空拳으로如何한暴漢强敵이라도即席에倒할、그奇効驚異함이臆病者곳大膽者가됨 至今갓흔騷亂한世上에男女勿論하고本術을배워서萬一의境遇를準備함이必要함



賜台覽 本術은畏람히各宮妃殿下의台覽의光榮을蒙하고文部省體育展覽會南洲院等地에서活動寫眞으로撮影하야女子學習院常盤會實踐女學校山梨師範等에採用되고今日武道會及講道館을비롯하야天下武道의達人은爭先하야此를硏究함에至함

(內容槪要)◆護身術◆心身鍛鍊法◆氣合應用術◆極意◆神體護身術◆手刀術◆必逆手術◆殺法◆活法◆拔手術◆其他三十六秘法 一一히親切叮嚀히說明하야何人이던지곳即席에習得하게그우에解傳此際申込하라

(優待)質問券 者一千名限

四六版上箱入 金文字入特製本 寫眞入美本 定價金二圓五十錢 特價一圓五十錢 ◇前金으로申込 送料十六錢 ◇代金引換은送料廿錢 無代無料添付

振替東京六二一八六番 東京市銀座西三町 中込 三光社 院